18대 국회 '정상 개원' 무산

쇠고기 대치…출발부터 '삐거덕'

야 3당 "재협상 때까지 개원 무기 연기"
한 "단독 개원은 않겠지만…" 등원 촉구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의 충돌로 18대 국회의 정상적인 개원이 무산됐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4일 한미 쇠고기 재협상 선언 때까지 개원을 무기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한나라당은 야당 없는 단독개원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5일로 예정된 18대 국회 개원식은 열리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내에 첫 집회를 갖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지키지 못해 출발부터 '위법'의 오점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혜영, 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강기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기 위해 거리에 나선 국민이 경찰의 물대포와 군홧발에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개원은 국민의 분노하는 심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한미 쇠고기 재협상 선언 때까지 개원을 무기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3당 원내대표들은 또한, "정부는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자율규제협정'이란 것을 맺어달라고 애걸하고 있는데 이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을 모욕하는 짓"이라며 내각 총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협상을 선언하고 즉각적인 재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협상 촉구결의안 채택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정상적인 국회 개원을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였으나 한나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대상이 가축이지 사람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논리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국회는 정상화될 수 없으며 그렇게 문을 연 국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이 요구한 국회 차원의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수용에 이어 '쇠고기 여야 방미단' 및 국회 쇠고기 대책 특위 구성 등을 거듭 제안하면서 야당이 등원을 끝내 거부할 경우 단독 등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내일 등원한다"며 "오늘 299명의 의원에게 등원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개원식 당일 '단독 등원' 방침은 '쇠고기 재협상 선언 때까지 무기한 개원 연기' 입장을 밝힌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불참해 반쪽이 텅 빈 국회 본회의장을 보여줌으로써 야당이 민생국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속내도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야3당, 개원 연기 공조 야 3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이 4일 국회에서 쇠고기 재협상 선언 때까지 국회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며 손을 잡고 공조를 다지고 있다. 왼쪽부터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권선택, 민주당 원혜영, 민노당 강기갑 원내대표,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 /연합뉴스

이번에도 개원 '위법' 되풀이 되나

지난달 30일로 4년 임기를 시작한 18대 국회가 사실상 법적 시한에 맞춰 개원을 하지 못하게 됐다.

국회법 제5조는 '총선 이후 최초의 임시회는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5일에는 개원식을 열어 18대 국회의 시작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원식은 국회의장단 선출과 대통령의 국회 연설로 이뤄지지만 쇠고기 해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개원 자체가 미뤄질 공산이 크다.

5일 개원식이 못 열리면 법을 만드는 입법부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개원이 미뤄지면 대통령 연설도 연기된다.

국회법 41조는 각 상임위원장을 총선 직후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뽑도록 하고 있다. 5일 개원을 한 뒤 오는 7일에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민주당이 쇠고기 전면 재협상 선언때까지 국회 등원 거부 입장을 밝혀 원구성 협상은 물론 원구성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회의원 임기개시 후 7일이내에 개원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같은 규정이 처음 적용된 1996년 15대 국회 단 한번이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李대통령 "경제 불가항력적 상황"

국가 유공자·유족 초청 오찬

"전사한 국군 유해 끝까지 찾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우리가 1~2년 정도 뒤에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 나가면 세계 경제가 좋아졌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 유공자와 유족 230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석유값과 원자재값, 식량 가격이 껑충 뛰어올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걱정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비축량이) 일본은 15%, 미국은 25% 정도 되나 우리는 4% 정도인데다 일본은 모든 산업구조를 석유를 절감하는 형태로 바꿨지만 우리는 아무런 준비없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유일한 나라이나 앞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지 없을 지는 향후 5년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와 관련, "일본을 방문했을 때 굳이 과거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일본이 이제는 스스로 피해국에 대해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였다"면서 "일본이 가해자로서 피해국에 스스로 사과하는 것을 바라지 우리가 '사과하라', '사과하라' 해서 억지로 하는 사과는 백번 들어봐야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찬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보훈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저는 실천으로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6·25 당시 전사한 국군유해를 찾는 작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몇십년이 지나도 대한민국을 위해 몸을 던진 애국자들의 유해를 찾는 일에 끝까지 관심을 갖는다는 좋은 본보기를 임기중에 만들겠다"면서 "연세가 많고 생사확인도 할 수 없는 국군포로들에 대해 북한도 인도주의적 처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애국을 말로 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과 몸을 던져 실천하는 애국자는 많지 않다"면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늘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면서 보훈가족들을 격려했다.

/연합뉴스

DJ "쓴약 먹이듯 밀어 붙이면 美도 손해"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4일 쇠고기 협상 파문과 관련, "미국 입장에서도 쓴 약 먹이듯 밀어붙이면 손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신임 인사차 예방한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을 맞은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뉴질랜드, 호주산 사먹으면 미국도 손해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쇠고기를 사먹는 손님이고 미국은 장사하는 사람"이라며 "미국 속담에 '소비자가 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파는 측에서 불안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쇠고기 문제는 외교 문제도, 안보 문제도, 경제적 이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일반 대중이 아침 저녁 상에 오르는 쇠고기를 안전하게 먹고 싶으니 그걸 보장해 달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9일 '국민과의 대화' 연기

이명박 대통령은 9일로 예정됐던 '국민과의 대화'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애초 국민과의 대화를 취임 100일인 3일로 잡았다가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히고 이해를 구한 뒤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9일로 연기했던 것"이라면서 "현재 야당이 쇠고기 재협상 선언때까지 등원 거부 방침을 정해 국회 개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민과의 대화를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미국과 추가 협의중인 쇠고기 문제가 민간 업자들의 자율규제로 가닥이 잡힌 만큼 원만히 해결되는 대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국민과의 대화를 재차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대비
관점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파 강의!
곽내영교육학
곽내영고시학원 http://www.naeyoung.com
대표전화 529-0090
광주역과 무등경기장 사이(신안 사거리)
여름방학 특강! 현재 상담 접수중
개강 7월 4일
언제 어디서나 만난다! 곽내영교육학 인터넷동영상
에듀뷰넷 www.eduview.net (02)816-1646

자격증은 취득하고 싶은데…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많다면!
주소창에 www.sein.co.kr 를 쳐보세요.
① 온라인 자격증 포털 아카데미 "세인에듀"/www.sein.co.kr
② 경찰채용, 승진 포털 아카데미 "세인폴리스"/www.seinpolice.co.kr
③ 온라인 고용환급 전문 교육 "세인LMS"/www.seinlms.co.kr
④ 전기·소방 전문 교육 "세인나라"/www.seinnara.co.kr
대한민국 No.1 온라인 평생교육 세인에듀
SEINEDU ☎02)3144-0075~8

새롬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361-8111 북구점 ☎529-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롬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매월초 (첫진도 시작반)
교용보험가입근로자교육비환급
수강료 50%·80% 환급 사전 접수바람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롬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북구점 ☎529-8111

=정부는 올해안에 소방공무원 2,228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성황리 강의중)=
7·9급 공무원 완전대비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검찰사무직 법원직 철도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금년 중·하반기 시험
개강 6월2일 (주·야반 모집)
합격수강 회원모집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십시오!!=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 222-4560